

완도군 “여객선 반값에 타고 섬 여행하세요”

2월 1일부터 일반인(군민 제외) 반값 운임 지원 사업 시행 청산도·여서도·노화(넙도)·소안·보길 등 방문 시 할인

완도군은 관광객의 여객 운임비 부담을 덜어주고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2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일반인(완도군민 제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은 청산도, 청산 여서도, 노화(넙도), 소안, 보길도를 방문하는 일반인에게 여객 운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객선 운임비가 지원되는 항로는 완도-청산, 완도-여서, 화흥포-동천-소안, 팜골-산양, 팜골-넙도이다.

터미널 이용료나 차량 운임은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경로, 장애인 할인 등을 받는 경우는 할인율을 우선 적용한 운임비의 반값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0월 4일부터 12월 26일까지 123,343명에게 3억 6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원금이 감소하여 약 83,000명의 관광객 및 일반인에게 여객선 운임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섬 여객선 반값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운임료 부담을 줄이고, 최근 섬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섬 관광 활성화에도 보탬이 돼 지역 경제에 활력이 돌기를 바란다”면서 “활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선사와 협의 및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진도군, 2023년 공공예금 이자수익 57억원...127% ↑

진도군이 2023년 일반회계 공공자금을 운용한 결과 공공예금 이자수익 57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45억원의 수익률에서 127% 증가한 수치로 진도군 공공예금 이자수익의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군은 경기불황에 따른 세입감소,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감소 등 자금 운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높은 장·단기 정기예금을 적절히 활용해 자주 재원을 확보했다.

고객 지출의 경우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대기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했다.

또한 일반 입출금 현황에 따른 계좌 잔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보통 예금의 유유자금 거치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높은 이자수익 성과를 냈다.

그 결과, 공공예금 이자수익 57억원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것은 2023년 진도군이 한해 동안 징수한 지방세외수입 254억원의 22.4%에 달하는 액수다.

진도군 관계자는 “2024년에도 자금관리 종합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세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자금 운용을 하겠다”며 “이자수익의 최대화를 통한 재정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진도군, 2024년 ‘인공지능-사물인터넷(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모집

진도군이 오는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인공지능-사물인터넷(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대상자를 선착순 50명 모집한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은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오늘건강’ 앱(APP)을 설치 후 건강기기(손목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 측정기 등)를 제공하여 보건소 전문인력이 6개월 동안 비대면 건강관리 하는 사업이다.

군은 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건강위험요인에 따라 건강임무를 설정하고 영역별 건강전문가를 통한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임무를 성공하면 성공 물품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허약체질에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현재 355명의 어르신이 건강관리를 받고 있다.

신청은 진도군 보건소를 방문 또는 전화접수 할 수 있다. 문의는 진도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1-540-6924)으로 하면 된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 부산면, 사고 없는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다짐 부산면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 실시

장흥군 부산면행정복지센터(면장 황정숙)는 29일 노인일자리참여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지고 안전한 사업 운영을 다짐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전통보행보조기 및 원동기, 자전거 사용 중 안전모 착용과 동절기 심뇌혈관 질환 예방법 등 안전교육을 병행했다.

이날 부산면민회(회장 김철수)는 발대식에 참여한 어르신에게 간식을 제공하여 훈훈함을 더했다.

이날 참석한 김성 장흥군수는 “어르신의 안전과 행복한 노후생활이 군민 전체의 복지 수준으로 이어진다”며 “어르신들이 활력있는 노



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면은 2024년 사고없는 건강한 노인일자리사업을 목표로,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흥=김도영 기자



강진 어린이 놀이시설, 아동들과 함께 만들어요

강진군은 지난 25일 레오808카페에서 강진군 아동참여위원회 회의를 열고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고 30일 밝혔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정책 뿐만 아니라 강진군의 모든 사업에 어린이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초등학생 14명으로 구성·위촉됐다.

이날 회의는 참여위원회 모집 당시 제안한 정책 중 가장 관심이 높았던 ‘강진군 어린이 놀이시설’을 주제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을 펼쳤다.

강진군은 어린이 놀이터 46개소가 설치돼 있지만, 어린이집·아파트·학교 내 놀이터는 이용대상이 제한적이고, 놀이기구 또한 다양하지 못해 이용 만족도가 낮다는 의견들이 많

았다. 또한 학교 운동장 개방으로 많은 군민들이 함께하는 점은 좋으나 정작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 속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부족한 놀이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강진군의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대형 정글짐·회전놀이기구·바닥을 활용한 놀이문화 등 특색있는 놀이공간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이와 함께 권역별 놀이터 설치, 면 단위 문화회관 및 학교 강당을 활용한 프로그램, 방학 중 실내체육관 개방, 유아숲 내 질라인 설치, 그리고 대기시간을 줄이고 자연을 공부할 수 있는 놀이터 내 열린책장 설치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강진=김영일 기자

해남군, ‘건축물대장 없는’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추진

해남군은 건축물이 존재했으나 건축물대장이 없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미등재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은 비도시지역의 건축면적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로 2006년 5월8일 이전 완공된 건축물이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지적 재조사가 완료된 옥천면 영춘, 영신, 백호, 송산리와 송지면 통호, 사구리, 마산면 화내리, 화산면 삼마리 등 8개마을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해남군은 양성화사업을 지적재조사 완료지구와 연계 추진, 지적측량비를 절감하고, 건축물 현황도면을 대신 작성해주는 등 군민

들의 편의를 적극 돕고 있다.

사업대상 건축물 관련 자료조사 등을 통해 126건을 확정했으며, 2월부터 양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절차는 건축물 소유자가 읍면사무소에 양성화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남군 건축허가과에서 현황도면 작성자를 지정 후 대상 생성을 신청하고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 합법적인 건축물로 양성화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부담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